

# 내년 교육예산 편성, 도민 의견 적극 반영

### 전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총 1994명 참여... 안전한 학교·독서인문교육·수업혁신 요구 높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총 1,994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년도 1,772명에 비해 222명 증가한 것으로, 학부모 748명(37.5%), 교직원 451명(22.6%), 도민 110명(5.5%), 학생 685명(34.4%) 등이 함께했다.

이번 조사는 의견서 제출과 설문조사를 병행했으며, 의견제출의 경우 진로교육 13건, 예술교육 10건, 학력신장

10건 등 총 294건이 제출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의견 중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문에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투자 대상 사업과 각 정책별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경청했다.

그 결과 전북교육 기본방향 중 확대 지원해야 할 분야로 학력신장(28.5%), 안전한 학교(27.9%), 책임교육(10.4%)을 꼽았다.

또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중

확대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는 독서인문교육(28.4%), 수업혁신(27.9%), 교과 학습 강화(13.3%)를 선호했다.

분야별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인문독서교육에서는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강화(26.2%) △수업 혁신에서는 개념기반탐구수업(35.9%) △진로진학교육에서는 전문직업군 진로 멘트 지원(23.5%) △교직원활동보호에서는 학교 민원대응체계 강화(22.9%) △ESG실현에서는 생태전환 교육과정 운영(25.5%) 등이었다.

학생 대상 설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육 분야

로 진로진학교육(23.1%), 예체능 교육(22.4%), 외국어교육 순으로 답했다.

특히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 지원, 예술공연 및 전시, 스포츠 관람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북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인문독서교육, 수업혁신, 진로직업, 예체능 교육 등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수업 혁신의 길 찾다

### IB 준비학교 담당자 협의회

### 수업·평가 혁신 방안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전주 신라스테이호텔 회의실에서 IB 준비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B 준비학교는 교사들이 IB 교육의 철학과 수업을 자율적으로 탐구·연구하는 학교로,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을 높이고 수업혁신 문화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협의회는 IB 준비학교 10개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IB 기반 수업·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별 운영 현황 공유 △IB 철학 기반의 수업·평가 혁신 사례 탐색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IB 준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IB 공식 워크숍 및 연수 제공 △IB 월드스쿨 수업 참관 △IB 코디네이터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수업과 평가 혁신의 길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열정과 노력이 전북형 미래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유희태 완주군수, 남해경 대승한지마을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교육진흥과 계승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대승한지마을 연계 전통문화 체험 교육 진흥

### 전북교육청, 완주군과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승한지마을을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교육 진흥을 위해 완주군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유희태 군수는 이날 5층 회의실에서 남해경 대승한지마을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교육진흥과 계승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마를 및 기관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교육에 기여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문화 교육의 진흥과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대승한지마을을 전통문화 기반 교육활동 지원 △학생들의 관련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승한지마을은 고려한지의 전통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유일한 한지 마을로, 한지 생활사 전시관, 한지전시관, 한지 제조장, 프로그램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한지 체험 등 전통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유희태 군수는 "천년 한지의 시발점인 완주 한지의 역사성과 기능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박물관 유물 보존재료 등 활용 분야의 선택지도 무궁무진하다"며 "우리지역의 경쟁력인 전통문화 장려에 적극 동참해 준 전북교육청과 대승한지마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한지는 우리 민족의 철학과 정서가 스며든 전통문화의 정수"라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전통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중앙도서관서

### '열시의 정원 II' 전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은 오는 30일까지 중도리운지 전시 갤러리에서 소진영·서미나 작가의 '열시의 정원 II'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지와 빛, 데이지 꽃'을 매개로 따뜻한 햇살과 평온한 감정을 담아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소중한 순간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기획됐다. 한지 특유의 질감과 빛의 투과성을 활용한 회화·공예 작품 12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비전한국어센터

### 가을·겨울학기 운영 워크숍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국제교류원 비전한국어센터는 지난 4일 우정관에서 '2025년 가을·겨울학기 운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총장과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제교류원 관계자 10명, 한국어 강사 17명 등 총 29명이 참석해 다가올 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주오 프로그램은 △2025년 가을·겨울학기 교육과정 운영 안내 △센터 발전 방향 및 유학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 △신규 수업 개발 발표(2명 강사 발표) △체합형 수업 시연 등이다. /장은성 기자

## JST 공유대학원 첫 신입생 선발... 오리엔테이션 개최

### 도내 5개 대학 공동 운영

### 미래산업 융합형 인재 양성

JST공유대학원이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 지난 4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JST공유대학원은 전북 지역 5개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융합형 대학원 특성화 트랙으로, 전북의 핵심 산업인 미래수송기기,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 지역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이교우 JST공유대학원장,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채수찬 전북 RISE센터장 등 주요 인사와 신입생들이 참석해 첫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첫 기수를 맞이한 신입생들에게 학사 일정과 교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대학·지역·산업이 연계된



JST공유대학원이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 지난 4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사진은 이날 오리엔테이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지산학 협력 기반' 공유대학원의 비전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학문적·진로적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교우 본부장은 "JST공유대학원은

지역과 대학,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첫 신입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는 지난 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스스로의 가능성 믿고 더 큰 꿈 향해'

###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 2025년 장학금 수여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는 지난 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학업우수장학생, 꿈키움장학생, 재능우수장학생 등 3개 분야에서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생 1,070명에 총 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업우수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발전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해 1·2차로 선발, 9월과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혜는 총 1,500여 명에게 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총 250명이 참석했다.

전주상업정보고 유다미 학생(3년)은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고 기뻐했다"며 "꿈을 이뤄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늘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 성과 공유

### 도내 고교생 24개팀 96명 참여... 활동 경험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도내 고등학교 24개 팀, 96명이 참여해 △탐방 프로그램 운영 성과 △교내 성과발표회 결과 △팀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앞서 학생들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10개국을 탐방하며, 주제와 관련된 현지 기관·공동체·연구소를 직접 찾아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 시민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량을 키웠다.

해외탐방에 참여했던 학생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현지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 해결



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진로를 고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학생 주도의 탐구와 연구가 이뤄진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 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4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호남권 신산업사업단 3개 대학 협약 체결식. (사진=전주비전대학교 제공)

## 호남권 신산업사업단 3개 대학 '맞손'

### 전주비전대·순천제일대·조선이공대 등

### 공동 교류 포럼도... 성과관리 전략 특강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4일 비전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호남권 신산업사업단 3개 대학 협약 체결 및 공동 교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2.0에 참여하는 순천제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호남권 3개 대학 협약 체결식 △성과관리 전략 특강 △각 대학 사업단 사업 개요 발표 △성과 확산

방안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 대학성과관리지원센터 김수현 센터장은 '신산업 2.0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성과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다양한 방안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우병훈 총장은 인사말에서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을 통해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과 포럼을 계기로 참여 대학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